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12호
12월 10일
2022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교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그리스도의 유일성 포기, 종교다원주의·혼합적 성격”

‘WCC 제11차 총회,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열려



한림원 이사장
조용묵 목사



한림원 원장
정상훈 박사

한국기독교한림원(韓國基督教韓林院, 이사장 조용묵 목사·원장 정상훈 전 성결대 총장)은 지난 11월 25일(금) 오후 3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WCC 제11차 총회,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WCC 제11차 총회 내용을 복음주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비판했다. 아울러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일치주의 등 비성경적 신학과 주의 주장을 철저히 배격하고 성경대로의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에 기초한 사역자 양성과 한국교회의 건실한 부흥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광희 박사(평택대 교수)의 사회로 목창군 박사(전 서울신대 총장)의 기도, 서정숙 박사(강릉영동대 명예교수)의 성경봉독, 최대해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 회장(대신대 총장)의 설교, 썬투스 미션교회(남서울 은혜교회)의 특송, 합심기도 순서로 이어졌다.

최대해 목사는 요일 1:5-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침묵의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 목사는 “성도로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거룩성과 완전성을 지니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필수요건이다. 복음은 대화로 풀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목회자는 자기 외의 인간적인 허영심으로 사역해서는 안 된다.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빠진 일치와 화평은 복음 아니다.”라고 역설하고, 복음사역자와 신학자의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강조했다.



한국기독교한림원, 제2차 학술대회 개최

이러진 합심기도 순서에서 임성택 전 강서대 총장, 안명준 평택대 명예교수, 이광희 평택대 교수가 각각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한국기독교한림원을 위해 기도했다.

조용묵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학술대회가 이어졌다.

이날 학술대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칼스루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Christ's love moves the world to reconciliation and unity)라는 주제로 열렸던 WCC 제11차 총회를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분석·비평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한림원 원장 정상훈 박사는 대회 개회사에서 “WCC는 회기가 거듭되면서 본래의 목적과 성경에서 벗어나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외형적인 기구적 연합과 일치만을 추구하며 가톨릭과의 연대뿐 아니라 여러 타종교와의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WCC의 반성적 행보를 바르게 분명하고 대저함으로, 종교다원주의가 난무하는 이 포스트모던시대에 한국교회가 십자가 은혜의 복음과 성경으로 재무장하고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림원 이사장 조용묵 목사는 신임회원에 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한림원 총무 박용국 박사(이신대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와 논평의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선 박사(인양대 교수)는 ‘WCC 제11차 총회 주제에 대한 복음주의 시각에서의 분석과 비판’이란 제목의 논문 발표를 통해 “WCC 총회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만 강조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영혼구원은 소홀히 하는 것”을 비판했다. 아울러 “WCC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 얻는 측면은 거의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면서 “십자가 복음전도에서도 타종교와의 만남과 화해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고백과 한계선을 초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WCC의 종교다원주의적 경향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주 박사(전 이신대 교수)가 ‘WCC 제11차 칼스루에 총회의 선교신학 비평’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며 “이번 WCC 총회의 메시지는 성경과 이데올로기를 섞어서 만든 불순한 혼합메시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2년도 칼스루에 WCC 메시지는 순전한 기독교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과 이데올로기를 섞어서 만든 불순한 혼합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WCC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선교 명령을 기억하고 잃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영혼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길 바리고, 우상숭배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재발견하기를 열망한다”면서 “집회명 중 첫 두 계명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우상과 함께 나누지 않는다는 엄중한 명령을 기억해 마지않기를 경고한다”고 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승수 박사(합동신학대학원대 교수)는 ‘WCC 제11차 총회에 대한 신학적 분석’이란 논문을 통해 WCC 활동을 비판하면서 “이 세상의 다른 세력과 다른 기관들이 제시하는 동원 메시지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 하는 강한 질문이 제기된다”고 전하고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기관들과는 다르게 선교 기관과 단체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선교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기관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한국교회는 모두 중단해야 할 것이고 WCC와 연관된 지역별 모임이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활동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규 박사(백석대 석좌교수)의 종합논평과 질의응답 순서에 이어서 오덕교 박사(전 합동신학대학



원대 총장)의 폐회기도로 성령충만했던 이날 학술대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상규 박사는 “WCC 제11회 총회는 이전에 WCC가 지향해 왔던 신학을 견지하되, 신앙고백적 일치보다는 외형적 연합을 중시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표명하고 그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결국 복음의 절대성이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함으로써 종교다원주의 혹은 종교혼합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국기독교한림원(韓國基督教韓林院, KACO)은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에 기초하여 한국교회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독교적 가치 실현을 통해 한국 교회와 사회를 계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목적과 취지로 창립되었다.

지난 5월 20일(금)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창립감사예배를 드리고 ‘21세기 상황과 한국교회, 도전과 극복’을 주제로 제1차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한림원의 정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 한국기독교한림원 정회원

김원평 박사(한동대 석좌교수), 김선배 박사(침신대 총장), 목창군 박사(전 서울신대 총장), 박명수 박사(서울신대 명예교수), 박용국 박사(이신대 교수), 서정숙 박사(강릉영동대 명예교수), 안명준 박사(평택대 명예교수), 임성택 박사(전 강서대 총장), 이광희 박사(평택대 교수), 이동주 박사(전 이신대 교수), 이상규 박사(백석대 석좌교수), 이덕주 박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은선 박사(인양대 교수), 오덕교 박사(전 합동신학대학원대 총장), 정상훈 박사(전 성결대 총장), 최대해 박사(대신대 총장)



‘새 생명 그리고 풍성한 생명’



조용묵 목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집한 상태가 풍요한 상태로 변화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건 기록을 보면 날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집에는 연일 손님들로 붐볐고, 잔치 막바지에 가서 포도주 항아리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를 먼저 알게 된 마리아는 예수님이 혼인잔치 집의 곤경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인들이 이유 불문하고 예수님의 요청대로 여섯 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에게 전달되는 순간 매우 질이 높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였기 때문에 결집한 상태가 풍요한 상태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 사건이 주는 메시지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영혼과 삶과 육체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시민이 됩니다. 이 땅에서 주를 섬겨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부활하고 변화된 몸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써 수많은 군중이 배부르게 먹게 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휴식을 취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을 찾아 벳새다 마을 근처 빈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

리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 중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자 예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 어치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하였습니다. 잠시 후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떡이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사람들을 백 명 혹은 오십 명씩 모여 앉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는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먹기 위한 준비부도 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무리들이 모두 배부러 먹었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두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모두 결집을 풍요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행한 기적은 질적인 변화가 있었고, 벳새다 들에서 행한 기적은 양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대조적인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게 되는 변화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착이 오는 것은 도착적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생명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에 일어난 질적인 변화와 양적인 변화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음란물 수준 교과서”... 시민단체들, 폐기촉구

경기교육청에서 시위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해야...동성애·성전환·성행위 권리 등 주입

건강한성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지난 11월 7일(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내용이 거의 전 과목에 들어가 있다. 동성애, 성전환,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성행위를 할 권리, 성별을 선택할 권리,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할 권리, 동성애 등 반대 표현 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음란물과 유사한 포괄적 성교육, 관행적으로 애국된 역사관 등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내용을 주조하고 아동·청소년들에게 강

제 주입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민소통 채널과 공청회를 통해 학부모들이 제기한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올해 7월에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법에 의해 조항을 넣어서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무리한 기한을 설정했다”고 했다.

또 “다음 주에 교육부가 행정예고를 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졸속으로 심의해서, 이 나쁜 교육과정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한 상황이다. 교육부 장관도 공식적인 상태에서 잘못된 법령에 따라 나쁜 교육과정이 강행 추진되고 있는 형국”이라

고 했다.

이들은 “미국에서는 급진적 젠더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의 영향으로 2016~2019년 3년간 성전환을 위해 가슴성형 수술을 받은 청소년이 400%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보건자료 보고서가 발표되었다”며 “위싱턴DC의 한 유치원에서는 트랜스젠더 남성인 교사가 임신했는데 ‘하년 소년은 임신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4, 5세의 아이들을 세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젠더 교육의 위험성을 뒤흔게 깨닫고, 최근 미국 12개 주에서 동성애 교육 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2019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급진적 젠더 교육을 시행한 지 20년 만에 그 폐해를 바로잡고자 1998년의 성교육으로 복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서구의 이러한 회귀 움직임도 살펴지지 않고, 성급하게 실패한 젠더 교육을 우리가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들은 “만약 교육부가 ‘2022개정 교육과정’을 강행 추진하여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앞잡이가 되고, 성학제 인권독재의 부역자가 된다면 감당하지 못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장총, 제40회 정기총회 개최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상임회장 천환 목사 선출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40회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18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려 임원 선출 및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한장총 현 상임회장인 정서영 목사를 정관 제4장 12조와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 제40회 대표회장으로 추대했고, 고신 증경총회장인 천환 목사를 상임회장으로 추대했다.

개회예배는 상임회장 정서영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권오현 목사의 대표기도 후 제39회기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가 살전 5:12-2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별 관계 신앙'라는 제목의 설교, 증경대표회장 황수원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총회는 한영훈 대표회장의 개회인사, 서기 조강진 목사의 회원점명 후 성원이 되어 개회했다. 회의는 전회의록 낭독을 비롯해 각종 회의보고 등을 유인물로 받기로 하고 선거에 들어가 회계를 제외한 임원진을 선출했다.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정서영 목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 60:1)'라는 주제로 40회기에 장로교의 날 예배와 장로교신학대학교 전안제 등 한장총의 전통적인 주요사업을 계승하여 한장총을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또 "올바른 신학정립 및 신앙수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회장은 현재 예정합동개회총회 총회장으로 재임 중에 있으며, 한교연 대표회장과 세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상임회장으로 당선된 천환 목사는 "대표회장을 도우며 장로교 연합 사업에 대한 것을 잘 배우겠다"고 인사했다.

한장총 40회기 임원, 총무, 감사는 다음과 같이 인준됐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상임회장 천환 목사 △공동회장 회원교단 총회장 △부회장 고영기 · 김종주 · 장성 · 이종영 · 최재성 · 김진성 목사, 김순미 · 전우수 · 원형득 장로 △서기 김명찬 목사 △부서기 표성철 목사 △회록서기 정성엽 목사 △부회록서기 강동규 목사 △합동총무 김보현 · 김창주 · 황연식 · 맹상복 · 김순규 · 김외호 · 김교현 · 조세영 목사 △감사 강세창 · 김종명 목사, 박기상 장로

기독교개혁교단협, 제27차 정기총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모든 행사는 3개 단체가 공동주관으로



양정섭 목사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이하 한기개협)는 지난 11월 25일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 기념관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를

유임키로하고 임원진을 개설했다.

제1부 예배는 한기개협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예정합동개회총회 총회장 이승권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예정합동부흥총회 총회장 김권현 목사의 고전 15:9-11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예정개회총회 총회장 박형렬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곧 바로 회부처리에 들어갔다.

2부 회의는 의장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이사 하용준 목사(예정개회총회총회 총무)의 기도에 이어 회부처리에 들어가 절차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고 총무이사인 김영의 목사가 회원 점명하니 정족수가 되므로 의장이 개회됨을 선포했다.

계속된 회부처리는 절차보고와 전 회의록을 채택하고 대표회장 업무보고와 총무이사 사업보고, 재무보고 서경숙 목사, 최은희 목사가 감사보고를 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임원선출에 있어서는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를 비롯한 이사 노종관 · 박형렬 · 김권현 · 임정태 · 이영춘 · 서경숙 · 하용준 · 이영남 · 한성욱 · 임세준 · 김영의 목사를 유임하고, 새로운 이사로 민경구 목사, 박경주 · 김공순 씨를 선출했다. 감사 최은희 · 김정희 목사는 유임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2022 구세군 자선냄비, 서울광장에서 시종식

전국 17개 시도에서 12월 한 달간 거리모금



올해 자선냄비 거리모금 주제는 '이 겨울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Ring the Bell of Your Heart)'이다. 가장해 보이는 기부나 후원이라는 단어 대신, 어린이의 시선으로 '착한 일'이라는 언어를 사용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종식은 구세군 꼬나

무 기부자인 어린이의 '나눔 동시' 낭독으로 시작해 여러 내빈들이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장민희 구세군 사령관의 시종 선언에 이어 참여한 이들과 다함께 종을 들고 타종 세리머니를 펼치며 종소리를 울렸다. 역사어린이합창단과 구세군 브라스밴드의 문화공연도 펼쳐졌다.

시종식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종무실장, 오세훈 서울시장, NCCK 이흥정 총무 등이 축사와 함께 자선냄비에 성금을 기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구세군이 있었다"며 "전국 360여 곳에서 4만 5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펼치는 자선냄비 활동은 모든 거리에서 국민이 함께하는 나눔 실천의 생생한 감동 드라마로, 앞으로도 새로운 나눔의 기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세군 장민희 사령관은 "올해는 자연재해가 많았다. 지쳐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대한민국의 따뜻함을 나눠주는 좋은 친구가 되겠다"며 "올겨울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신화석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이하 세계기총)는 11월 28일 오전 8시 세계총 회의실에서 제10-3차 임원회를 개최하고 10주년 기념선교대회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내년 3



월 팔레스타인(베들레헴)에서 진행될 예정인 '세계 최초 AWM 200주년 나라 선교 기념대회'(기총)에 대해 설명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임원회 후 위촉식을 통해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와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가 미국 조지아주 명예시민'이 됐다.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조지아주는 미국에서 여덟번째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기아자 공장과 급료타이어 등 120여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한인 교포들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350여 곳의 한인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다.

이날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가 미국남북평화재단 회장 송지성 목사를 소개했고, 송지성 목사가 신화석 목사와 신광수 목사에게 명예 시민증서를 전달했으며 3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와 9대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2022 사학미션 컨퍼런스 개최

기독교 사학이 존립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 광진구 위격힐로 소재 그랜드위격힐호텔 비스타홀에서 '2022 사학미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교육 대전환의 시기, 기독교 학교의 길을 내다'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초·중·고와 대학교에 이르는 기독교 학교법인 이사장들과 임원들이 함께 모여 기독교 사학의 위기상황을 공동체적으로 분석·진단하고 한국에서 기독교 사학이 존립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재춘 교수(영남대학교 부총장)는 '교육 대전환의 시기, 기독교 학교가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선진외국학교에서 종교교육의 변화 경향성 분석,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학교가 직면한 주요문제는 어떤 것들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

떤 전략적 지혜가 필요한가?에 대해 강의했다.

김재춘 교수는 "미국·프랑스·영국 등 기독교 전통을 지닌 국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변화 과정을 보면 종교교육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미국과 정교 분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가 있는 반면, 국가가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독일 같은 국가도 있다"며, "하지만 이들 나라들은 선

진국 답게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특별관섭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재춘 교수는 또 "우리나라 기독교 공립학교가 직면한 문제들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교육청의 개입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 기독교 사립대학의 체질 대체 과목 개설의 문제, 국가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보협, 제37-1회 임시총회 개최

추수감사절 예배와 특강 시간도 가져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영호 목사)이하 한기보협)는 지난 11월 24일 오전 11시 서울시 동대문구 전호대로 소재 연약교회 대성전에서 제3차 임시총회 및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1부 감사예배는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인도로 개혁합동총회 임준재 목사의 기도, 예나우힘 류진하 선교사의 성경봉독, 세계선교회 선애스터 목사의 찬양, 김광복 목사의 위임, 대표회장 박영호 목사의 골 3:14-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성경도와 추수감사예배'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상임회장 김전기 목사의 인도로 특별 기도시간을 갖고 '총회, 단체가 하나님 나라 세움을 위하여' 합동보수총회 김태도 목사가,



'한국교회의 성령충만으로 회복을 위하여' 개혁총회 이규산 목사가, '대한민국 안정과 남북 복음통일을 위하여' 합동정통총회 백창준 목사가, 'WCC와 동상에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하여' 애녹총회 박영민 목사가 각각 기

도를 인도했다. 이어 새일꾼선교회 한치호 목사의 축시, 구속사총회 정순정 목사의 봉헌찬송, 세계선교총회 백영국 목사의 봉헌기도,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광고, 대표회장 박영호 목사의 인사말과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국교회 화요평화기도회' 창립예배

"한반도의 평화통일 위해 기도운동 하자"



(사)우리민족교류협회(총재 황우여 장로, 이사장 송기하 장로)이하 민교협)는 지난 11월 15일 북평방이 내려다보이는 김포시 '해

기봉 전당'에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하 한교연)과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신화석 목사)이하 세기

총) 세계각지에서 박해 받는 교회들을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영국지역 주요 인사들과 함께 한국교회 '예기봉 화요평화기도회'(이하 화요평화기도회) 창립예배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설교자로 나선 세기총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는 '회평게 하는 자'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평화가 깨어진 지구촌에 평화를 깨뜨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튿뿐임을 강조하고,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이제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범국민적인 체계적인 기도운동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자살예방 위한 생명사랑센터 지정

은혜제일교회,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거점 마련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담임 최원호 목사)가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센터'로 지정돼 운영을 시작했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김희종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주교)는 자살예방을 위해 개신교, 불

교, 원불교, 유교, 성균관,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개 종교와 종교시설 내 생명사랑센터를 지정했다.

생명사랑센터는 각 종교에서 강조하는 '생명 존중' 가치와 방식을 자살 예방 실천으로 연결시켜, 종교기관이 지역사회 내 위

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거점의 역할을 수행한다.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해 7개 운영시설을 우선 지정했다. 선정된 곳은 기독교에서 은혜제일교회와 도림감리교회이며, 이 외에 원불교 상계교당과 흥제교당, 자비외전화,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술종합사회복지관 등도 지정됐다.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은혜제일교회는 지난 지난 11월 26일 현관 전달식을 진행했다. 생명사랑센터에 자살 유족 및 어려움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방문하면 상담과 마음키트(다이어리, 스트레스볼 등)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지역사회 내 지원 및 전문기관에 연계도 가능하다.



■ 생명의 말씀 ■



엄기설 목사

· 교단 전임 부총회장
· 은혜와찬양교회 담임

은혜에 대해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자기가 너무 미웠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또 다시 넘어진 다음에 심각한 좌절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에게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은 실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 부분이 부족하네 하고 바꾸어 가아저 좀 더 노력해야지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숫으로 태어났습니다. 뒤는다고 해서 하얀 비누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타락 그제 우리 육입니다. 육에는 죽음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고, 완전히 죽었고 우리의 육은 여전히 육이고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성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나는 숫이 아닌 비누가 될 수 있다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죄는 살인, 강간, 도둑질 등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를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인데 이 기초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만들어 내고 스스로 채찍질하며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지을게요.”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는 주를 놓치지 않을게요.”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며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인줄로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길, 진리, 생명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본체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습은 모습이라든 개신의 여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이것을 지켜 그러면 사랑해 줄게 그러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걸으신다면 그것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기만을 원하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가지의 역할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열매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다면 그때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겸손하고 아주 용기 있고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본래 추하고 악하고 망가지고 파괴되고 죽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 즉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자에게서 좋은 부분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저의 모든 아름다운 부분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빌려 쓴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니고 빌려서 받은 것입니다. 또 제게서 부족함이나 잘못된 부분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난다면 그 모습이 바로 저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은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 했습니다. 주를 부르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루 24시간 주를 붙잡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지금 모든 사적이 실패하는 것은 기도할 때 외에는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항상 주를 부르세요. 꿈에서도 부르세요. 저는 암투병 생활 후 밤낮으로 주를 부르며 잠이 들었어요. 주님, 주님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정복해 주세요.

그렇게 주를 붙들지 않으면 죄를 지으니까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좋은 열매를 못 맺으니까요. 그저 밤새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고 주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죄짓고 넘어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원래 어떻게 뉘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당연한 거지. 이게 원래 내 모습이니까 그렇게 툴툴 털고 일어나서 격정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향해 가십시오. 주를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열매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애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한 가지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성품에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가 자유롭지 않은 이들 오직 예수를 붙드십시오.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놓치지 마세요. 돈을 잃어도 목숨을 잃어도 예수를 놓치지 마세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미래 발전을 위한 성숙한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정말 방송법이 그다지도 중요하고 필요했다면 왜 그때 야당은 21대 국회 초반에 개정하지 않았는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방송이라도 영구히 지배해 보겠다는 심산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공영방송을 어느 특정 정파나 정권의 입맛에 길들여야 할 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나는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을 있게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있다면 그런 썸스 정치를 지지하였겠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공영방송은 결코 누구의 편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하여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견제하고 지적하는 것이 방송의 책무(責務)이다. 방송은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자들에게 아무런 지지가 없는 살아 있는 언론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권력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만용(蠻勇)을 부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대도(大道)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썸스’는 부리는 자에게 안전기는 신관의 매서운 칼날로 부패정치꾼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동 정

추수감사주일 맞아 장기기증 서약



사람의 장기기증 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전국 11개 교회에서 성도 1,536명이 올해 추수감사절을 기념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다고 지난 4일(주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 제자광성교회(박한수 목사)는 추수감사절 생명나눔 예배에서 1,141명의 성도가 사후 장기기증에 서약했다.

한국군종목사단장 취임 최석환



제31대 한국군종목사단장으로 취임한 최석환 목사(55·대령)는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미지리 대대급 교회를 한국교회와 적극 연결해 지원을 늘리는 걸 강조했다. 최 목사는 지난 1일 대전 KT인제개발원에서 열린 한국군종목사단장 이취임식에서 신임 군목단장으로 취임했다.

한동대, 사명선교 포럼 개최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는 동대 효암 별관 3층에서 매주 화요일 낮 12시부터 진행되는 포럼은 전 세계 선교 현장의 생생한 정보 습득을 통해 대학이 가진 각종 전공으로 협력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포럼으로 최근 10차 포럼에 스위스 국제 긴급구호 NGO MEDAIR 국제 팀장이 직접 방문해 전 세계적으로 구호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찰스 맥비티 총장 올해의 지도자 선정



찰스 맥비티 캐나다 크리스찬칼리지(CCC, Canada Christian College) 총장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올해의 지도자’에 선정됐다. ‘이스라엘협력재단(IAF)’은 매년 전 세계에서 50명의 지도자를 발표하는데, 맥비티 총장은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연방총리, 마이클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등과 함께 선정됐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방송법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진작 하지 그랬을까?

공영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영방송(KBS, MBC, EBS)들은 과연 공정하고, 권력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편향되지 않았을까?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다. 얼마 전 MBC가 보인 방송 태도는 양식 있고, 지각 있는 언론인이라면 모두 깨닫고 있고, 오히려 국민들도 방송 편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공영방송 MBC가 지조한 일이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MBC의 다른 별칭은 ‘노영방송’이다. 노조가 움직이는 방송이라는 의미이다. 어쩌면 시청자이며, 언론 주권자이며, 그들을 돕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세금과 시청료로 운영되는 방송으로 이처럼 국민들의 생각과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존재감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것이다. 이런 방송들의 몰염치와 무책임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정치권의 비호(庇護) 때문이다.

어제 국회에서는 소위 방송법 개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0명 찬성자, 의안 번호: 15427)에 대하여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졌는데, 일방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위원회까지 열었으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야당 의원이 여야 3대 3 동수를 맞추는 것을 왜곡하였다. 그래서 여당 2명, 야당 3명과 현 야당 출신 의원을 포함시켜 결국 4대 2로 조합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이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 수를 현행 11인에서, 25명으로 늘리는데 있다(이날 통과된 운영위원회 수는 21명으로 함)

그리고 ‘이사’(理事)를 ‘운영위원’(運營委員)으로 바꾸면서, 기존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 ‘시청자사정추진평가위원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추천권은 누가 갖는가? 국회에서 5명(현재는 8명)과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정하는 방송학회,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등에서 6명,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에서 6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 21명 가운데 16명 정도가 민주노동당 신하의 언론노조와 친민주 세력에게 추천권이 돌아가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을 민주당에서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KBS의 이사는 11명 가운데 여·야가 7대 4로 추천하고 있고, MBC의 경우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 가운데 여·야가 6대 3으로 추천하고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도 집착하는 ‘방송

법 개정’은 편파와 왜곡방송으로 점철된 공영방송을 자기들을 위한 ‘점령밭’이 방송’으로 계속 존속시키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매우 혼란하다. 특히 정치권을 보면 서로가 상대를 배려하고, 국민의 정서와 참된 여론에 따라 국가를 이끌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만의 정권을 영구히 만들어 가고,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을 지배하려는 술수와 썸수만 넘쳐나는 그야말로 야비하고 저질적인 정치 행태가 되고 말았다. 정말 이러서는 안 된다. 아무리 거대 야당이 지기를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으로 길들이고, 법률개정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여도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끝없는 논쟁과 다툼의 사회로 만들어 가려는 것을 예 모릅시다?

이제는 썸수와 야비와 저속과 분열과 다툼의 정치에서 타협과 협상, 상생과 국가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활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계좌번호 기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개척 2주년 축하예배 안수집사, 권사 취임

강원지방회 월례회도 개최

강원지방회(회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11월 6일(주일) 강릉 WAY CHURCH(담임 김형준 목사)에서 개척 2주년을 맞이하여 축하예배와 함께 안수집사, 권사 취임식을 갖고 그동안 사랑과 은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의 종으로서, 직분자로서 충성과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WAY CHURCH교회는 경포해변의 아름다운 해변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활짝 펴 오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휴식을 주는 아주 평화로운 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찬양지역과 말씀으로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미움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로 부흥하고 있는 WAY



CHURCH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귀한 직분자로 세위임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았다.

이날 예배는 이성은 목사의 목사의 사회로 시작, 박규희 목사의 기도, 정주영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박순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시 65:4 말씀을 본문으로 '백하심을 받은 사람'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백하심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늘의 귀한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지역사회에서 가

장 성경적으로 성장하는데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유홍열 목사의 권면, 김택우 목사의 축사, 담임 김형준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진장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강원지방회는 또 11월 10일에는 원주샘물교회(담임 박규희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산하 교회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새로 개장한 인근의 소금강 출렁다리를 건너고 산행을 하면서 가을 풍경을 만끽한 후 오찬을 함께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자!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11월 17일(목) 오전 11시 부산시 기장군 정안을 좌천리 341-2에 위치한 순복음사랑이념치는교회(담임 정환무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박정옥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의 대표기도, 홍찬일 목사(순복음반송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시 133: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형제의 연합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계속해서 진영훈 목사(순복



음세움교회의 한금기도, 증경지방회장 한영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각종 업무를 처리한 후, 순복음사랑이념치는교회에서 준비

한 불고기 뷔페기로 식사를 하고 가을 바다의 풍경이 좋은 커피숍을 찾아 차와 다과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뒤 다음 월례회를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쇠하지 않는 성령충만함으로 사역할 것 다짐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는(회장 도사현 목사)는 지난 11월 28일(월) 경북 김천시 신기길 71

에 위치한 새김전교회(신재영 목사 시무)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이항구 목사(주관양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윤철희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부회장 허만

운 목사(순복음성산교회)는 창 27:1-4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자들도 세월이 흐르며 나이를 먹어가겠지만 그래도 몸과 마음이 쇠하지 않는 성령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자"고 설교를 전했다.

이어 지방회 회계 정인철 목사(상주반석교회)의 헌금기도, 교단 부총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온소망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지방회원들이 모여 월례회를 가지며 회의를 하고, 그 후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눴다.

식사 후에는 김천에 있는 부항댐 흔들다리로 이동해 사진도 찍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다시 새김전교회로 이동해 아쉬운 인사를 뒤로하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내연산 소금강 일대에서 가을산행대회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김영환 목사)는 지난 11월 22일(화) 오전 10시 가을산행대회를 갖

고 지방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내연산 소금강 일대를 둘러보며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 산하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사역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쉬를 얻었다.

코로나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인원들이 있었지만, 이 시간 서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며 은혜인 것을 깨닫고 오랜만의 산행과 기도시간을 함께 가지며 서로 축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계 야유회 통해 사랑의 교제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이미순 목사)는 지난 11월 24일(목) 추계야유회를 갖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오전 9시 양무리교회와 은혜와찬양교회에서 각각 출발해 전북 임실 청웅식당에서 점심식사 후 임실 운암면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아섬으로 향했다.

늦가을인 탓에 단풍은 많이 시들었지만 출렁다리와 봉아섬에 많은 관광객들로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여행에 나선 사람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슴으로 느끼며 마음의 힘을 얻었다. 봉아섬 산책 후에는 임실 치즈



테마파크 관광과 함께 전임 지방회장 은혜와찬양교회 엄기설 목사(전임 부총회장)가 섬긴 화덕피자를 먹고 돌아오는 길에는 한 소망교회 이미순 목사가 섬기는 동래찌개로

식사를 함께했다.

회원들은 이날 야유회를 통해 더욱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다짐하며 모든 일정을 마친 후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월례회 및 박행남 목사 은퇴예배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강인덕 목사)는 지난 11월 15일(화) 서광중앙교회(담임 전한배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

고, 박행남 목사 은퇴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분찬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박용진 전도사의 대표기도, 분찬우 목사의 성경봉독, 박행남 목사의 요 15: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경진 목사가 은퇴자 박행남 목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승수 목사의 축사, 지방회장 강인덕 목사의 은퇴배 증정과 축복기도 후 전임 교단재무 탁정진 목사(전임 여교역자 국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강인덕 목사의 사회로 총무 서기 분찬우 목사의 회원 점명과 총무 서기 보고, 재무 회계 박태균 목사의 재무 회계 보고 후 기탄없이 대해 토의하고 오세준 목사의 회회 기도로 월례회의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아멘순복음교회, 목사임직 감사예배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 아멘순복음교회(담임 임형순 목사)의 사모이자 전도사로 섬기던 허은희 전도사가 지난 11월 26일(토) 목사임직식을 가졌다.

이날 목사임직 감사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광현 목사의 대표기도로 시작해 전임 회장 은금용 목사(현한이웃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은 목사는 마 20:1-6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로 받은 사명'이란 제목의 설교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다.



지방회 전임회장들의 안수식에 이어 최은규 목사(순복음선한목자교회)의 공포 및 권면 후 전하세 목사(열린축복교회)의

축사가 이어졌다. 끝으로 엄혁석 목사(주성교회)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AG ASSEMBLY OF GOD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 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 인터넛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 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영향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6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차별금지법 저지, 주민자치법 악법제정 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제2대 대표회장 이·취임식 및 감사예배

(사단법인)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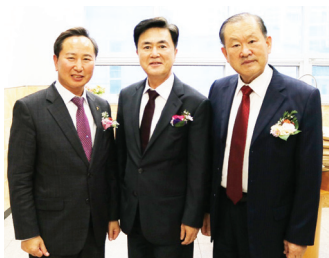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동웅 목사)는 지난 11월 25일(금) 오후 4시 배방중앙교회에서 제2대 대표회장 이·취임식 및 감사예배를 드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임하는 진동웅 목사의 노고와 헌신을 기린 후 그동안 노력하신 차별금지법 저지와 주민자치법 등 악법제정 저지를 위해, 아산시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뜻을 이어 헌신할 신임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의 취임식을 축하했다.

이날 1부 감사예배에는 본부장 김수홍 목사(시온감리교회)의 사회, 아기연 중경회장 정훈화 목사의 기도, 그레이스찬양대의 찬양, 아기연 연합봉사회 이사장 박귀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행 20:22-24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께 받은 소명”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1977년 신현균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에 의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45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12년 전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진동웅 목사님을 초대 대표회장으로 추대하여 당시 아기연 350교회를 중심으로 복음화운동에 열정을 다하여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거듭하여 명실공히 전국 최우수 단체로서의 영예를 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는 선교 단체로 중심에 굳게 서 있다”고 전했다.

박 목사는 이어 “이는 초대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이며 후임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님께서 그 뒤를 이어 더욱 더 복음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줄 것”



진동웅 목사와 김태홍 총남도지사, 신임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사진 우로부터)

을 강조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면서 바울과 같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상임회장 황기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실무회장 조이철 목사의 인도로 2부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정팔 목사의 내빈소개, 김원진 목사의 기도, 진동웅 목사의 이임사, 공로패 및 위촉패 수여, 김병완 목사의 취

임사, 축하패 및 공로패 수여, 목양신문 이사장 조용목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배방중앙교회 중등부학생들의 축하위임이 있었다.

이어 축하 순서로 김태홍 총남도지사와 아기연 대표회장 박덕수 목사, 온양지방회장 엄태일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명수 국회의원, 박경귀 아산시장, 천기총 전 연합회장 안준호 목사의 격려사, 충기연 전 총회장 이승수 목사, 아기연 전 회장 임정대 목사의 권면의 순서 후 아기연 상임회장 정병환 목사의 아산시와 민족복음화를 위한 기도, 사무국장 이진희 목사의 광고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이날 축사에서 김태홍 총남도지사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컸던 것처럼 민족복음화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기도하여 정권교체를 이루는 일에 아산시와 민족복음화운동본부의 큰 역할이 있었다며 치하하고 특히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님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진동웅 목사는 78년 신현균 목사님에 의해 민족복음화 운동본부가 창립된 이후 복음화운동을 위해 기도운동, 기독교연합운동,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운동을 펼쳐오고 있다고 전하고 차별금지법 저지와 주민자치법 등 악

법제정 저지를 위해, 아산시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성원을 당부했다.

새로 취임한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는 선배님들의 복음의 열정과 뜨거운 나라사랑의 애국정신을 이어 아산시와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 낼 것을 다짐했다.

제2회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한 특별한세미나

신학생과 목회자를 위해, 사도의 표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주제로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11월 28일 열려



김용덕 목사
전임 총회장

정기영 목사
부산신학교 학장

최정식 목사
광주신학교 학장

2022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신학교(이사장 겸 학장 정기영 목사) 주최 제2회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한 특별한세미나가 지난 11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까지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제1회 세미나에 이어 3년간이나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고 바른 신학,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받아 죄의 포로에서 참자유를 얻음은 물론이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를 간구했다.

교단 전임총회장 김용덕 목사, 부산신학교 학장 정기영 목사, 광주신학교 학장 최정식 목사를 강사로 하여 열린 이번 세미나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며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을 일깨우고 교단과 교회,



한국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일에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1부 개회예배는 부산신학교 교무처장 서미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태주 목사의 찬양인도, 부산신학교 교수 한순남 목사의 대표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이사장 정기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롬 8:1-4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일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총이 나

타내고 은혜가 들어가면 죄와 사망 모두 제하여 진다는 은총을 기억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서 목회현장에서 말씀을 바로 받고 말씀대로 행하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계속해서 광주신학교 교수 조은주 목사의 봉헌기도, 사회자의 광고, 전 학장 한병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지방회와 호남지방회 등 곳에서 찾아온 회원 동역자들과 세움교회에서 제공한

오찬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어 교단 전임 총회장이며 목회자평생교육원 원장인 김용덕 박사를 비롯 광주신학교 학장 최정식 목사, 부산신학교 이사장 겸 학장이며 순복음세움교회 담임 정기영 목사를 강사로 하여 하루 동안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김용덕 목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는 말씀처럼 성령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충만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게 될 것”을 강조했다.

광주신학교 학장 최정식 목사는 “바울은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침묵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후 12:12)고 했다. 참음을 사도의 능력으로 표현했다. 그렇다면 사랑은 분명히 능력이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길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많은 것은 배웠지만 인내를 배웠을 것이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 무엇을 배워가며 살아야 하는가? 인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계 3:10)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하며 주신 사랑강당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부산신학교 학장 정기영 목사는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며 모든 사역의 본질은 사람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모두 이 같은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2회 신학생과 목회자를 위한 특별한 세미나를 주최한 부산신학교 학장 순복음세움교회 담임 정기영 목사는 질병으로, 가정분제로, 부부분제로, 자녀분제로, 직장과 사업 문제를 안고 담당하고 억눌림에 처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임을 깨닫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죄인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유튜브를 통해 80여 개국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한다고 밝혔다.

순복음세움교회 : 051)731-4202 부산시 진구 전포동 191-777

한국사회에 파고든 이슬람, 유럽의 이슬람 성장이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

이슬람세력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

인천지방회 ‘이슬람의 도전 앞에 선 한국교회’ 이슬람선교 세미나



유해석 선교사
총신대교수

김정근 목사
영성순복음교회 담임

정진균 목사
학원순복음교회 담임

인천지방회(회장 김경진 목사)는 지난 11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인천시 서구 서달로 149번길 12-12 학원순복음교회(담임 정진균 목사)에서 총신대 선교대학원 유해석 교수(전 GMS/OM 소속 이집트선교사)를 강사로 이슬람선교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 유럽발 무슬림 정치인의 등장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듣고 유럽 전지역에서 이슬람세력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일깨웠다.

1부 세미나는 ‘유럽 이슬람인구 성장이 한국에 주는 교훈’, ‘이슬람의 도전 앞에 선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열려 총무 김진원 목사의 찬양인도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방회장 김경진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었다. 경기북인천지역 총연합회 진유신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 직전회장 정진균 목사의 성경봉독, 유해석 교수의 특강 순으로 이어졌다.

유 교수는 “영국의 기독교가 내리막길을 걷는 것과 동시에 이슬람이 성장하는 것은 둘 사이에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오늘날의 영국은 한국의 내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무슬림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원인이 1990년대에 들어서 시작된 노동력의 부족, 저출산,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또한 한국 이슬람이 성장하는 원인이 이민, 다산, 무슬림들이 한국 기독교인들과 결혼, 그리고 한국인들의 개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슬람 인구가 한국에 들어온 원인과 성장하는 원인이 영국과

달랐다. 한국교회는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유럽과 이슬람은 심리적인 원수가 되어서 지난 14세기 동안 각종 전쟁으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서구 교회가 부흥할 때도 심리적 원수 상대였기에 이슬람권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사역에 한국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슬람의 문제를 기독교의 문제, 나의 문제로 보고, 말씀으로 돌아가 복음을 회복할 때 이슬람의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야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2부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김명학 목사(남지방회 전임회장), 한국교회와 교단과 목회자를 위해 이창모 목사(인천지방회 전임회장)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총무 김진원 목사의 광고 후 전임회장



반인홍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인천지방회는 지난 회기동안 한국교회에 침투해 오는 이단사이비의 대처를 위해 지난해 6월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장)를 강사로 세미나(목양신문 117호 3면)를 가졌으며 11월에는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등 기존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온갖 사회 악법들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은 이에 대해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 할지 감지연 약사(영남신학대학교 특임교수)를 강사로 세미나(목양신문 118호 3면)를 갖고 한국교회에 침투해오는 이단사이비와 전도를 불

가능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지방회 전임회장 정진균 목사는 이단사이비 대처, 차별금지법 반대 등의 세미나를 통해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4월 3일(주일), 10월 1일(주일) 오후 2시에는 건국대통령이승만을 알리고 평가하게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한 금란교회 사역훈련원장 이호 목사(국회조찬기도회 강사, 기독교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를 강사로 학원순복음교회에서 ‘거룩한 대한민국 그리고 이승만’이란 주제로 특강시간을 갖기도 했다.

“대법원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결정’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대법원은 11.24.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 대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10년간 유지해왔던 종전 대법원 결정을 변경하였다.

대법원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정정을 허가한다고 하여 성전환자와 그 미성년 자녀 사이에 개인적·사회적·법률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별정정을 막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변경의 이유로 내세웠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변경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정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특히 남자와 여지로서의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성경적 원리에 반한다. 사람들 중에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성전환증을 인위적인 성전환수술로 바꾸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별정정 허가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잘못된 인정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둘째,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정정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외면한 불공정한 판단이다.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음에도 성별정정을 허용한다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나 남성이 여성으로, 또는 어머니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어린 자녀들이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셋째,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정정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아버지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자 또는 어머니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남자로 표시됨으로써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현행 헌법이 금지하는 동성에 합법화로 나가기 위한 사전 표시가 아닐 수 없으며, 현실 적응능력이

성숙되지 아니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동성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부모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한다”는 논리로 낙태 천국의 물꼬를 튼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함께 한국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가치관을 세우는 두 가지 동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깊은 우려를 가지게 한다.

약자 중의 약자인 미성년 자녀와 태아는 우리의 미래이며 소망으로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이들의 이기적인 자기결정으로 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그 역할을 자각하고 수행하기를 촉구한다.

2022년 11월 28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류영모

공동대표회장 고명진 강학근 김기남 이상문

한국교회의 미래 방향 설정 전략과 대안 제시

미래목회포럼 제19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 감사예배



미래목회포럼은 지난 11월 1일(목)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제19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의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국교회와 더불어 온 힘을 기울여 나갔다고 다짐했다.

이날 제19회 미래목회포럼 제19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 감사예배는 이상대 목사의 사회로 서기 박재신 목사의 회원점령, 회순제택, 실행위원장이 목사의 개회기도, 이사장 박경배 목사의 제19회 정기이사회 결의안 보고, 사무총장 박병득 목사의 2022년 사업결과 보고, 감사 안종배 교수의 2022년 감사보고, 회계 양인순 목사의 2022년 회계 보고, 박경배 목사의 제19회기 대표 및 임원 인준으로 진행됐다. 총회 인준과정을 통해 신임대표에 이동규 목사(청주교회), 이사장에 이상대 목사(서광교회)가 선임되어 회원들의 인준을 받았으며 이어 화강 분배, 고퇴 전달 및 신규 임원교제 후 신임 대표 이동규 목사의 회의 진행으로 2023년 정책자문위원 추천, 사업계획안과 예산편성안, 지출예산안 등을 확정하고, 정책자문위원 민화규 교수의 폐회 기도도 회무를 모두 마쳤다.

총회 후 바로 2022 미래목회포럼 제1회 올해의 기자상 시상식이 열려 CTS 최대진 기자와 교회연합신문 치천대 기자에게 첫 번째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전체기념촬영 후 드러진 이날 이·취임 및 위촉 감사예배는 심상호 목사(대외협력본부장)의 인도로 조희완 목사(행정선교본부장)의 기도, 양인순 목사(안중은 누리교회)의 성경봉독,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마 11:7-9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



기독교는 130년 역사에 종교 1위로 우뚝 섰지만 번영신학, 온실신앙 등이 자리하면서 교회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더불어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아성의 상실이라는 위기를 맞았다”고 전하고 “이제 다시 광야로 나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예수정신을 전해야 한다.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데 앞장서는 미래목회포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례별 기도 시간에는 정재명 목사, 송용현 목사, 윤용근 변호사의 인도로 “한국교회 거룩성 회복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한국교회의 연합과 남북통일을 위해” “대한민국과 사회통합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대표 이동규 목사는 직전 대표와 직전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고, 이상대 목사와 이동규 목사에게도 취임패가 전달됐다.

계속해서 최이우 목사와 오정호 목사, 김봉준 목사 등이 축사를 전했다. 축사 후에는 설동주 목사의 인도로 축하케의 컷팅을 가졌으며 오정호 목사(예장합동부총회장)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태안 유류 피해 극복’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태안 만리포교회에서 감사예배 드린다

태안 유류피해 극복 15주년을 기념하고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감사하는 예배가 태안 군기독교연합회(회장 공하영 목사)와 한국교회봉사단 공동 주관으로 오는 12월 13일 오전 11시 태안 만리포교회에서 개최된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26일 한국교회의 연합과 섬김 정신이 녹아 있는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이 삼국유사, 내방가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으로 최종 등재됐다.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은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대형 유류 유출 사고와 극복 과정을 담은 약 20만 건이 넘는 방대한 기록물이다.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속 사고 발생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을 담은 해양 재난 극복 기록물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의 상부상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의 사례로 해양의존도가 높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유할 가치가 있는 해양환경 정보의 집합체로서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으로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은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891
-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나길 8 (양평동 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육처 (우)70205
-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 의 승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 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 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 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추천서(소정양식) 1부 반경합별 사진 1매

주민등록증(2개월 내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일로도 됨.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성명서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잘못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졸속 추진을 중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수많은 독소조항이 있어서, 다음 세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합니다.

독소조항의 몇 가지만 언급하면, 남녀가 아닌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젠더’,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포괄하는 ‘섹슈얼리티’, 젠더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 동성결혼으로 확대될 ‘다양한 가족’, 프리섹스 의미와 낙태권을 포함하는 ‘성·생식 건강과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결국 잘못된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급진적 젠더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의 영향으로 2016~2019년 3년간 성전환을 위해 가슴성형 수술을 받은 청소년이 400%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보건의로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교육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병들게 되며, 수많은 가정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와 양성평등을 기초한 혼인·가족제도를 해체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구의 일부 국가들은 이런 교육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고 급진적인 젠더 교육을 중단하려고 하는데, 서구가 실패한 젠더 교육을 한국이 도입하여 많은 가정이 고통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국민소통채널과 공청회를 통해 많은 국민이 제기한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예고를 강행하고 무조건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기껏해야 2~3주 만에 졸속으로 심의를 마칠 수밖에 없고, 이 나쁜 교육과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큰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라는 법정 고시 시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기에, 그것을 무리하게 지키기 위한 졸속 처리를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아 래 —

1. 다음 세대를 위하여,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있는 모든 독소조항을 삭제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졸속 추진을 반대하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하여 올바른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3. 교육과정에 독소조항을 넣은 집필진을 교체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포함된 새로운 교육과정 시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5일

한국기독교한림원 이사장 조몽목 목사·원장 정상운 박사

— 한국기독교한림원 정상운 원장 외 정회원 교수 일동 —

정회원 교수 명단 김원평(한동대학교 석좌교수,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대표), 김선배(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 한국신학대학협의회 회장), 목장균(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박병수(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교회사학회 회장), 박용규(이신대학교 교수, 개혁신학회 회장), 서정숙(강동영동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신학회 이사), 안명준(명백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장로교신학회 회장), 임성택(강서대학교 총장, 미래세대청년연합교회 대표), 이광희(명백대학교 교수, 개혁신학회 회장), 이동주(아신대학교 교수, 바이어하우스학회 회장), 이상규(백석대학교 석좌교수, 개혁신학회 회장), 이승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이억주(칼빈대학교 교수,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이은진(안양대학교 교수, 한국복음주의역사학회 회장), 오덕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한국장로교신학회 회장), 정상운(성경대학교 총장, 한국신학회 회장), 최대해(대신대학교 총장,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 회장)

*기타나온, *표는 전직

— 한국대학기독교총장포럼 정상운 회장 외 회원 총장 일동 —

대학 총장 명단 강우정(한국성서대학교), 김근수(갈빈대학교), 김선배(한국침례신학대학교), 김성수(고신대학교), 김영만(전주비전대학교), 김용관(부산장로회신학대학교), 김재연(칼빈대학교), 권용근(영남신학대학교), 노세영(서울신학대학교), 모영기(동원대학교), 목장균(서울신학대학교), 문성모(서울장신대학교), 신민규(나사렛대학교), 안주환(서울신학대학교), 오덕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길형(강서대학교), 이병수(고신대학교), 이은규(안양대학교), 이정숙(셋트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 임승안(나사렛대학교), 임성택(강서대학교), 임철수(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정상운(성경대학교), 정인용(홍신대학교), 정홍호(아신대학교), 정효제(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현(개신대학원대학교), 최대해(대신대학교), 최문자(협성대학교), 최홍식(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황덕형(서울신학대학교)

*기타나온, *표는 전직 총장

“쪽방촌과 독거어르신, 코로나 이후 첫 사랑의 의료진료 펼쳐”



장헌일 목사
대동동종교협의회 회장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섬기는 사회구호개발NGO (사)월드뷰티엔즈(회장 최에스터 신한대 뷰티헬스학과 교수)와 신생병나무교회(담임 장헌일 목사, 대동동종교협의회 회장)는 오랫동안 무료진료를 통해 인술을 베풀던 남서울교회(담임 화종부 목사)의료선교부(회장 김범규 안수집사)가 11월 27일 주일 오후 2시 마포 해동마을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된 후 2년 만에 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한방 등 전문의료진료를 통해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의료봉사로 섬겼다.

장헌일 목사는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취약

한 환경에 계신 어르신들께 지속적인 사랑의 의료진료를 통해 정성껏 섬겨주신 남서울교회 의료선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월드뷰티엔즈 회장 최에스터 교수는 “사랑의 의료서비스”와 함께 “마포구 독거어르신 우울감소를 위한 두뇌 및 핸드케어”를 통해 사랑을 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선교부 총무 서정훈 집사를 비롯한 전문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 봉사자와 장민혁 사무총장(WBH), 구훈 장로(자원봉사단장), 최세연 사무국장, 최세진 영양사와 이상신 엘드림노인대학회장이 섬겼다.

문의 : 장헌일 목사 010-4604-0765



CTS기독교TV 창사 27주년 감사예배

복음의 사명을 언제나 잊지 말자!

1995년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으로 국내 최초 개국한 CTS기독교TV(회장 강경철 '이하 CTS')가 올해 창사 27주년을 맞아 12월 1일(목) CTS아트홀(서울시 동작구 노랑진로 100 소재)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장 합동총회 부서기 김한성 목사(CTS이사)의 사회, 한세종 사관(CTS이사)의 기도, 채윤희, 채준희 남매의 특별찬양에 이어 이순창 총회장(CTS공동대표이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총회장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CTS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 하나님께 직원 모두 고백하길 바란다.”며 “CTS 27살 생일날 아름다운 복음방송 순수복음방송 CTS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하며 축복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감경철 장로(CTS회장)는 “하나님께서 CTS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방송의 지경을 넓힐 수 있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감사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특별찬양에서는 CTS오카리나 오케스트라 ‘홍광일, 조성영’ 남이 ‘Lonely Shepherd’를 연주했다.

CTS는 12월 17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정동길에서 성탄절과 초기 기독교의 성탄 문화를 알리는 ‘2022대한민국 성탄축제 조선의 크리스마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동협의회 조교분과 회원소속 교인들과 서울지역 교회 및 청년예술가들이 성탄절 버스킹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무안 해제 충만한교회, 가족세트 전도

살롱!!

2022년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엊그제까지도 단풍의 향기가 짙은 가을이더니 이제 겨울에게 길을 열 어주었습니다. 한 해 동안 주께서 베풀어주신 영육간의 결실들이 점점 추워지는 계절에도 삶의 터를 따뜻하게 덮어주시길 믿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에 뜨거운 동정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참다운 친구가 한명이라도 곁에 있을까? 그런 친구를 만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므로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전도를 통해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진정한 친구로 삼자. 그리하면 그의 위로와 축복기운에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안창남 목사의 스토리텔링으로 함께 동참하고 체험한 전도 현장의 일상이자 인사말씀입니다.

안창남 목사는 시골 무안해제에서 노인들을 내 가족처럼 돌보며 선한사마리아인의 역할(Nursing&Caring,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생활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실제적 선교전도를 몸소 실천하는 특별한 선교적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번에 박영수 목사 가족세트전도집회를 통해 2박 3일에 걸친 전도축제 기간 중 각 지역 노인회관을 순회하며 지역인들에게 복음을 영접시키며 안파 발에 가서 일하는 어르신들까지 모두 영접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 위크샵에서 설교자로 초청받은 안창남 목사의 간증을 통해 눈물어린 감동과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가진 무안 해제 충만한교회 가족세트전도 집회를 통해 10명이나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교회출석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보고였습니다.

가족세트전도는 지금도 이어지는 전도입니다. 추우나 더우나, 눈이오나 비가오나, 박영수 목사의 능력전도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열약해진 교회마다 전도자를 발굴하고 훈련시켜 그 교회에 전도자를 세웁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족세트전도 총괄본부장 이수 교수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692-1691, 010)3730-2573



승고한 나눔, 각막 이어 시신 기증

마지막 염원 이루며 가족들과 아름다운 이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이하 본부)는 지난 11월 9일, 향년 8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故 박은주 권사(83세, 여)가 임종 직후 각막기증으로 시각장애인 2명에게 생명의 빛을 선물한 데 이어 11일에는 의학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9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故 박은주 권사의 빈소에는 생전 고인이 붙들었던 시편 46편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구절이 펼쳐진 성경 옆으로 “세상에 빛을 남긴 고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본부의 근조기가 놓였다.

빈소를 지키며 생전 고인을 추억하던 둘째 딸 김희정 씨(54세, 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각막과 시신기증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17년 전,故 박은주 권사는 출석하던 사랑의교회에서 진행된 생명나눔예배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



록에 참여했다. 같은 날, 고인 뿐 아니라 자녀들과 어린 손자에 이르기까지 삼대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오래 전부터 온가족이 함께 생명나눔에 대한 뜻을 품었다. 고인의 임종 직후 자녀들은 생전 장기기증을 통해 환자들을 돕고 싶어했던 박 권사의 유지를 이어가고자 각막기증과 시신기증이라는 숭고한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인의 각막기증은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루어졌고, 시신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되었다. 딸 김 씨는 “어머니의 나눔이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기적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의학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어 후대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뜻깊은 일이 되길 바란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신대 동문 제3회 ACSA 타문화권 사역자 대회

아시아와 세계선교비전 품고 다시 뭉쳤다

아시아와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으로 젊은 시절 배낭 하나만 메고 세계를 무대로 선교활동에 몸을 내던진 아신대학교 동문들이 한 곳에 다시 모였다.

이제 막 선교를 시작한 동문부터 주름살이 깊게 패인 30대 만에 친구들과 교수들을 만나게 된 동문까지 저마다의 세월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ACSA’라는 이름의 공식적인 모임을 가

졌다.

이번 대회는 학기 중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150여 명의 선교사, 총장, 이사장, 교수, 직원,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50여 명의 선교사 자녀들도 자리에 함께했다.

세계를 무대로 사역을 하는 동문들이 한 곳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2019년에 태

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서남아시아권 동문선교사들과 아신대 교수들의 만남이 불씨가 되어 ACSA 타문화권 지역사회가 발족되어 전 세계 동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본 대회가 개최되게 되었다.

11월 22일(화)~25일(금)까지 3박 4일간의 ‘페낭 한인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를 통해 서로의 사역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선택특강, 소그룹 모임, 초음파검사, 상담, 사역 멘토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울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믿음으로 새바람을 일으키는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심

농부는 얼어붙은 농토에도 씨 뿌릴 생각을 하며 돌아본다고 합니다. 봄이 오면 반드시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함 인생은 황혼 때도 남은 시간을 위하여 씨를 심어야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 6:8)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악에게 대항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성령의 거둬내게 하심을 따라 새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육체가 즐거워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데 이는 악한 생각과 죄질 생각과 탐심과 우상숭배로 심어서 그 열매가 썩어질 것, 곧 멸망에 이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회초나 나무를 잘 가꾼 정원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원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회초를 덮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그 양방치하면 악한 생각, 죄질 마음으로 더러워질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자연설리는 신앙인이든지 불신앙인이든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창조이래로 바뀌지 않는 자연설리라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이 진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 이 법칙은 계

속해서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법칙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복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삶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말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밟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욥 4:7)

악의 씨를 뿌리는 자의 그 결실은 허무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사 3:10).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호 10:2)고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6-7)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심지 않고 거두리라는 생각, 악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전 7:14) 또한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 16:5)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 5:22-23)

초대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만남 ... 능력의 시작



말씀은

잠자는 양심을 깨우는 능력이 있다.

인생의 경륜이 쌓인 자나 그렇지 못한 젊은이들에게나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은 동일하게 역사한다.

말씀은

죄인의 삶을 청산시키는 능력이 있다.

간음한 여인의 마음이 자신의 것일 뿐

환경을 이길 수 없었으나 말씀이 마음 속에 들어가

그 마음을 장악하니 새 삶이 비로소 시작된다.



양심이 깨어난다는 것...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

위대한 하나님자녀의 삶은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에서 시작된다.

일상적인 매일의 일들이 기적이 되고

살아온 지난 세월이 은혜가 되고

멀리만 있던 천국은 소망이 된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 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분 안에만 있으면 승리는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 7:53-8:11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깨달음을 적다.

사설

성공과 승리의 길

통 드리볼 끝에 상대편 진영에 다다른 손흥민. 상대편 포르투갈 선수 3명을 찢고 손살같이 달려온 황희찬에게 킬패스. 황희찬은 손흥민에게 받은 볼을 눈스톱킥. 골인. 대한민국의 이번 월드컵 목표인 16강을 확정짓는 순간이었다. 1-1로 평평했던 전후반 경기. 추가시간 6분 동안에 터뜨린 황금의 슈트 골이었다. 피파랭킹 9위의 포르투갈을 피파 랭킹 28위의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짜릿한 순간이었다.

손흥민의 물모양인 슈퍼스타 호날두가 후반에 퇴장을 하고 경기중 부상으로 마스크 투혼을 불태운 손흥민이 있었지만 기대만큼 활약을 못하고 마음 고생하던 손흥민이 막판에 황희찬과 합작해 만든 골이었다.

목이 터져라 외치던 응원단 앞에 가서 잔디밭에 슬라이딩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눈물 콧물을 리턴 응원단들은 서로를 일깨우고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환호하면서 축하했다. 인구 270만명의 이슬람 국가의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중동 최초의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16강 진출에 성공한 것이다. 3월 새벽 1시

50분쯤에 이뤄낸 쾌거였다. 인류가 가장 열광하는 스포츠 두 종목이 있는데 그것은 축구와 야구다. 그런데 두 종목 모두 4강에 진출한 희귀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축구 경기처럼 대한민국의 열하고철린 문제들도 시원하게 해결되고 막힌 부분들도 하수구가 뚫고 뚫리듯 뚫렸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축구, 야구 두 종목에 모두 4강에 들었던 대한민국. 경영이나 시험이나 원맨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 훌륭한 팀워크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최고의 이군이다. 팀워크로 일하는 것이 오래 가고 결국엔 성공과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빨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다.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은 보수 진보가 함께 어울려 협력할 때 가능한 일이다. 국정도 여와 야가 함께 타협하고 협력할 때 가능한 일이다. 사사건건 서로가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기만 한다면 그런 나라는 절대로 성장하거나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일이다. 국가의 공동체인 정부와 국민이 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만 한다. 여야정치권에서도 16강 진출처럼 시원한 얘기가 들려왔으면.

지혜의 근본

오늘날 전례없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뜻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뭉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키운 핵무력과 비대칭 전력에 맞는 방어 능력을 키워야만 대화가 된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대화를 구걸하는 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힘을 갖출 때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전 정권은 내 부장을 다 풀이놓고 한미연합훈련도 없애고 북한 말만 듣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며 “조간부 유엔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그러는 사이 ‘회담이다’, ‘선언이다’하며 경계가 느슨해진 틈에 북한은 오히려 핵무력을 고도화할 시간만 번 셈이 됐다.

지금의 결과는 북한이 한 번도 핵 고도화를 중단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의 자신감으로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일본 상공을 통과하고 우리 영해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실제로 쏘고 있다.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NSS)는 미국의 전략정책을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3대 핵전력, 즉 핵지휘·통제·통신, 핵무기 인프라 등을 현대화하고 동

맹국에 대한 확장 역지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만들기 위한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를 추진할 것이며,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역지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했다.

일본이 지역방어를 위해 전례 없는 군비증강에 나서고 있고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순기능보다 동북아 위협 지역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결코 간과돼선 안 된다. 동북아 군사 정치 지형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엄중한 때 매일 우리끼리 지엽적 말쑥리를 잡고 싸우는 정치권은 이 시대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재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할 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잠 9:11,12)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행동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3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제1회 실행위원회

일시 2023년 1월 6일(금) 오전 11시(시무예배 및 신년하례)
(12시 점심식사, 13시 실행위원 회의)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031)443-3731~2

참석 실행위원(정책위원, 총회임원, 지방회장), 각 위원장, 각 국장, 전임지방회장

※ 점심식사 등 준비반계로 참석여부를 12월 19일(월)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장목사 김병목
총무목사 정진균